

## 할머니역 지정대사

### S#.6 수술실/밤/실내.

할머니와 준학, 희정이 수술실에 들어와있고 수술대 위에 막둥이가 누워있다.

준학: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.

할머니: 잠시만요.

준학이 주사를 놓으려는데 할머니가 막는다. 막둥이와 눈 높이를 맞추고 쓰다듬는 할머니.

할머니: 막둥아, 못난 할미 만나서 고생만 하다가 가네. 할미가 욕심이 많아서너를 너무 오래 붙잡아뒀던 것 같다. 이제 할미가 보내줄게. 가면 아프지 말고 꼭 쉬고 있어야 돼. 할미가 곧 따라갈 테니까. 어디 가지 말고 거기서 잘 있어야 돼 알겠지? 응? 할미가 사랑해.

할머니가 마지막 인사를 하면 희정이 눈물을 겨우 참는데 준학은 참지 못 하고 대놓고 눈물을 흘린다.

할머니: 이제 해주세요.

할머니의 말에 준학이 울면서 주사를 놓는다.

INS . 비워져 있는 할머니 집의 막둥이 밥 그릇.